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식

2020년 인권의 날 기념 유엔인권최고대표 성명서 ‘인권은 감염병, 금융위기 등 글로벌 쇼크에 대한 백신’

2020년은 어느 누구도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겪었던 끔찍한 한 해였습니다.

2020년은 모든 지역, 모든 국가들이 고통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 모든 종류의 인권이 위협받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균열과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공정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드러냈습니다. 인권보호를 우선시하지 못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아주 다른 세 가지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번 위기가 끝난 후 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정상화를 위한 힘겨운 노력이 이루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상황이 우리를 현재의 위기로 이끈 것입니다. 혹은 우리는 더욱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의료용 백신은 결국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용 백신으로는 이번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타격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아,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등 인류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있습니다. 이 백신은 감염병, 금융위기,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같은 과거 거대한 글로벌 쇼크를 겪으면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 백신의 이름은 인권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 인권의 핵심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 10일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72주년을 기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섯 가지 인권 분야(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아우르는 한 개 이상의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s)을 비준함으로써 세계인권선언의 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또한 아동,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특정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중요한 국제조약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약은 여러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은 불평등, 빈곤, 발전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를 심화시키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19는 최선을 다해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우리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지 인권 보호가 어려운 상황만이 아니라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를 무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번 감염병은 우리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취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 의지입니다. 원하는 부분이 아닌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부패에 맞서 싸우려는 의지도 중요합니다. 빈곤에 자금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국들은 빈국이 이번 위기에 견디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훼손된 다자주의 체제를 복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 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기에 대응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권이라는 백신을 사용하여 더욱 포용적이고 위기 대응능력이 뛰어난 사회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Human-rights-key-to-build-the-world-we-want.aspx>

한국 인권위 소식(1)

인권위,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2월 7일 유엔경제사회 회국,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주유엔 아르헨티나대표부와 함께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권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특히 팬데믹에 취약한 노인들의 생명권, 안전권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보호되고 최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개최되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팬데믹 문제는 한 지역,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가 동참하고 합심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 제안을 하게 되었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을 포함하여 UN, 각국 정부, 국제노인인권보호 시민사회단체 등이 흔쾌히 동참함으로써 성사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콘퍼런스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미셸 바첼렛 유엔인권최고대표 축사, 프레디 카리온 인트리아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의장 축사에 이어 클라우디아 말러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와 키란 라베루 세계노인인권연합(GAROP) 의장의 기조발제가 있었다.

이어 △1부에서는 마리아 델 카르멘 스퀴프 유엔고령화실무그룹 의장 당선인이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제11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준비 현황 및 정부 간 논의 사항에 대하여 발표하고, △2부에서는 교육·연수·평생교육 및 역량 강화 관련 규범 요소를 △3부에서는 사회보장·사회안전 관련 규범요소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노인의 안전권 보장 방안을 △4부에서는 일 할 권리와 노동시장 접근권 그리고 사법접근권을 주제로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콘퍼런스 결과는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제11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회의(유엔 정부간 노인인권보호 협의체)에 전달되어 유엔, 각국 정부 등의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콘퍼런스를 계기로 노인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COVID-19) 정부 방역 정책에 따라 온라인을 기반으로 진행되었고, 일반 참석자들은 유튜브 ‘국가인권위원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었다.

한국 인권위 소식(2)

인권위,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콘퍼런스 개최 예정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18일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며, 인권위 유튜브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다.

※ 세부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30	국민의례, 안내 및 참석자 소개 (개회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권인숙 의원(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환영사)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기 념 촬 영		
(제1주제)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발제) 황필규(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 위원장) (토론) - 김민후(법무법인 원 변호사) - 송지우(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오재창(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사회: 서창록 교수
10:30~11:20		
(제2주제)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활용 방안 (발제) 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 - 백범석(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 이해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 이성훈 특임연 구원
11:20~12:00		
12:00	폐회/정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소식

‘기후변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성명서

12월 3-4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연례회의가 개최되었다. “기후변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모범례 지식교환토론이 있었으며, 그 결과로 성명서가 채택되어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정치적 권리, 개발에 대한 권리, 건강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 최대의 위기 중 하나이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지나치게 큰 피해를 주고 그로 인해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면서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 영향완화, 적응을 위한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인권법이나 환경기준에 따라 도입되지 않는다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마저 가져올 수 있다.

정부가 주요한 의무이행자이지만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의무를 갖는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우리는 인권기반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 우리는 인권보호의 의무 및 차별금지과 참여의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인권기반 방식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에 대해서 정부기구 등 관련 기관에 조언을 제시한다.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의 인권적 영향을 점검하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의 인권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국제 혹은 지역적 인권 메커니즘에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 세분화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데이터 수집 시 여성, 여아,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소수민족, 국내 실향민, 이주민, 선주민, 환경권 운동가와 같은 특히 위험에 노출된 집단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 인권 기준 및 인권원칙을 준수하는 기존의 환경 및 기후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한다.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개발계획, 유엔환경계획 등 유엔기구가 국가인권기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지역네트워크가 본 성명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https://ganhri.org/wp-content/uploads/2020/12/EN_Climate-change-and-NHRIs.pdf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